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11. 18.(수) 총 7매(본문3, 참고4)	
담당 부서	건축문화 경관과	담 당 자	• 과장 김태경, 서기관 조항석, 주무관 손은수 • ☎ (044) 201-3775, 3776, 3777	
보 도 일 시		2020년 11월 1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18.(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회소통관 등 4개 작품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2020 한국건축문화대상(이하 ‘건축문화대상’)에서, ‘국회소통관’, ‘레인 에비뉴’, ‘경북도청신도시코오롱하늘채’, ‘구기동 125-1 공동주택’ 4개 작품이 대상(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국무총리상은 ‘국립익산박물관’, ‘연세대학교 법인본부’, ‘라피아노’ 3개 작품에 돌아갔다.

□ 건축문화대상은 우수 건축물을 발굴,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건축분야 국내 최고 권위·최대 규모의 행사로, 지난 ‘9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한다.

* (후원) 서울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 건축문화대상은 준공건축물 부문*, 신진건축사 부문, 계획건축물 부문의 총 3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올해 공모(4.20. ~ 6.8.)에도 370점이 접수(‘19년 361점)되어 여전히 높은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준공건축물 4개 세부분야) ① 사회·공공, ② 민간, ③ 공동주거, ④ 일반주거

- 접수된 작품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준공건축물 각 부문별 대상 4점, 본상 3점을 포함하여 총 23점을 선정하였고, 신진건축사 부문 6점, 계획건축물 부문 26점을 선정하였다.

□ 준공건축물 대상(대통령상) 4개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 (사회·공공) ‘국회소통관’은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과 언론, 행정부 등 관계자들의 효율적인 소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으로서 공공 시설물 건축으로서는 매우 혁신적이고 과감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건축 표현이 세밀하고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 (민간)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상업시설인 ‘레인에비뉴’는 연예기획사 사무실, 카페, 갤러리 등이 입주해 있으며, 도시에서 공공장소로서의 질 높은 사유공간을 제공하면서 건축적으로 충실한 공간과 형태라는 완성도 높은 가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공동주거) 경북도청신도시 내 첫 공공임대아파트인 ‘경북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는 체계적이면서도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된 커뮤니티 영역을 갖추고 있으며, 전통 도시 안동의 지역적 특성과 맥을 같이 하여 전통적인 공간적 위계와 질서가 잘 조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일반주거) 북한산 능선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현재 외국인학교 교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구기동 125-1 공동주택’은 붉은 시멘트 벽돌을 활용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입면화하고 난간의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디자인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였으며, 앞으로 공동주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 의미 있는 제시어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 또한, 건축 분야에 헌신 전념하여 두드러진 공적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올해의 건축문화인상’으로는 소록도 프로젝트 등 공간 보존을 통한 도시재생의 좋은 선례를 만든 (주)건축사사무소 조성룡 도시건축의 조성룡 대표가 선정되었으며, ‘공로상’으로는 아키그룹성창 건축사사무소의 조동욱 대표가 선정되었다.
- 시상식은 11. 19(목) 15시부터 16시까지 코엑스 B홀(서울 삼성동)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며, 각 분야의 수상자와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윤성원 제1차관은 “올해 건축문화대상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준공건축물 부문의 참여*가 특히 두드러졌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이러한 우수한 작품들이 건축문화대상을 통해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준공건축물 부문 접수 : 164점 ('19년 122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조항석 서기관(☎ 044-201-37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준공건축물 부문

○ 大賞 4개 작품 (대통령상 4점, 국토부장관상 8점)

세부 부문	작 품	대통령상	국토부장관상	
사회 공공		윤세한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자)	동부건설(주) (시공자)	국회사무총장 김영춘 (건축주)
	국회소통관 (서울 영등포)	(공공업무시설) 국회 소통관은 매우 민주적이고 친화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대지를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으로 인한 한계를 디자인적으로 비틀어서 형성된 매력적인 공간감을 보여주면서 건축 디테일의 표현이 새삼 두드러진다. 대한민국 공공시설물 건축으로서는 매우 혁신적이고 과감한 시도를 보여준다.		
민간		홍규선 여느건축디자인건축사사무소, 고영선 더플레이스디자인연구소 (설계자)	(주)제효 (시공자)	정지훈 (건축주)
	레인에비뉴 (서울 강남)	(상업시설) 외부 열린 공간과 그것을 둘러싼 테라스들은 서로의 움직임을 관망하며 장소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설계자의 계산된 의도는 매우 성공적이다. '도시 맥락에서 공공장소로서의 질 높은 사유공간의 제공이 새로운 풍경과 삶이 살아있는 장소'를 만들면서도 부족함 없이 '건축적으로 충실한 공간과 형태'라는 완성도 높은 가치를 실현했다.		
공동 주거		코오롱글로벌(주) (시공자)	황성택 에이앤유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주) (설계자)	경상북도개발공사 (건축주)
	경북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 (경북 안동)	(공동주택) 체계적이면서도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된 커뮤니티 영역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이 외부공간의 체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분산 배치되어 있어서 단지 전체가 골고루 균형 있게 사용되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 훌륭하다. 특히 전통 도시 안동의 지역적 특성과 맥을 같이 하여 전통적인 공간적 위계와 질서가 잘 구성되어 있으며, 대지의 경사를 자연스럽게 이용한 훌륭한 작품이다.		
일반 주거		김태집 (주)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자)	(주)웰크론한텍 (시공자)	재단법인코리아 외국인학교재단 (건축주)
	구기동 125-1 공동주택 (서울 종로)	(다세대 주택) 주거공간에서 외부와의 중간영역을 만들어내는 발코니는 사선의 대지경계를 잘 이용함으로써 깊이감의 변화가 생겨나오며, 내부 깊숙이까지 들어오는 발코니는 단독주거에서 보여지는 자그마한 마당과 마주하는 것과 같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붉은 시멘트벽돌은 현대적 감각으로 입면화 되고, 난간의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디자인되어짐으로써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 本 賞 3개 작품 (총리상 3점, 국토부장관상 6점)

세부 부문	작 품 명	국무총리상	국토부장관상	
사회 공공		조영돈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주)길종합건축사 사무소이엔지 (설계자)	선해종합건설(주) (시공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건축주)
	국립익산박물관 (전북 익산)	(박물관) 건축을 지면화 시킨 접근은 쉽게 보이지만 해결해야 할 요구사항들이 매우 많다. 박물관이 이런 한계에 도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기술적 접근과 대안으로 해결한 점 또한 높이 살만하다. 다소 지루한 진입로의 경관, 평이한 전시 공간의 연출 등 소규모 박물관임을 고려해더라도 아쉬움은 있으나 역사적인 대지에서 건축이 지녀야 할 겸손함에 대한 성공적인 선례를 만들어 냈다.		
민간		고대곤 (주)가아건축사사무소 (설계자)	(주)이안알앤씨 (시공자)	(학)연세대학교 (건축주)
	연세대학교 법인본부 (서울 서대문)	(교육연구시설) 대지를 주변 수목들의 빼어난 환경적 조건과 역사적 조건들을 시대의 흐름에 건축적 보존과 시대의 표출이라는 명제 아래 언덕에 건물을 인입시켜 각 기능을 가진 4개의 동이 서로 연결 배치되어서 자연스럽게 땅과 각각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연결된 동선을 통해 정적인 주변 환경의 높낮이와 풍광이 다른 빼어난 풍광을 풍미하며 다양한 자연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공동 주거	-	-	-	-
일반 주거		조성욱 (주)조성욱건축사사무소 (설계자)	(주)태영건설 (시공자)	(주)알비디케이 (건축주)
	라피아노 (경기 김포)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내부가로에서의 1층 진입과 계단에 의한 2층진입 등 다양한 진입방식에 의해 느껴지는 다양한 주거의 표정을 만들어내고 있고, 각자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테라스의 조합은 주거경관의 또 다른 표정을 제공한다. 여백으로 남아있는 외부공간들은 입주자들의 각자 개성이 드러나면서 변형되어져, 마치 의도되어진 듯이 개인의 삶의 일부가 마을의 경관으로 다양성과 풍부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 타운하우스가 갖고 있는 장점이다.		



* 그 외 우수상(건축사협회장상) 수상작 16점 선정

□ 신진건축사 부문 수상작

○ 大 賞 1개 작품 [국토부장관상 1점]

작 품	국 토 부 장 관 상
 <p>공백_언터처블 하트 (제주 제주시)</p>	<p>최 무 규 / 건축사사무소에스에프랩</p> <p>(카페, 갤러리) 일반적인 상업건축물에서 추구하는 바라보는 전망을 강조하는 전략과는 다르게 사용자들에게 전망과 함께 바닷가를 경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연결하는 순환동선을 제공하여 바라보는 건축이 아닌 경험하는 건축으로 구성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폐허가 된 기존창고의 장소적 감성을 유지하며 물성을 이용한 섬세한 건축적 구축 작업을 통해 텅 빈 공간에 건축물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장소성을 구현한 작품이다.</p>

○ 最優秀賞 2개 작품 [국토부장관상 2점]

작 품 명	국 토 부 장 관 상
 <p>모나무르 (충남 아산)</p>	<p>정 효 빈 / HB건축사사무소</p> <p>(아트갤러리) 스테인레스 스틸의 외장재로 구성된 미술관은 물과 하늘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져 형태적 요소가 아닌 자연적 요소의 일부로 인식된다. 모나무르는 대지의 높이차와 벽면들을 활용한 공간적 구성으로 사용자에게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유도하고 재료의 물성을 이용하여 제한된 조경이 아닌 자연과 동화된 특별한 장소로 승화시킨 작품이다.</p>
 <p>삼연재 (경남 하동)</p>	<p>최 정 인 / 일상건축사사무소</p> <p>(단독주택) 거실공간과 연계된 다락방공간은 작은 주택을 한 공간으로 인식 시키며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거실의 한 벽면을 가득 채우는 목재책장과 현관 입구에 위치한 콘크리트 디딤판 그리고 다락방으로 연결하는 목재와 스틸로 구성된 계단은 기능을 담은 오브제적 요소로서 작용하며 내부 공간에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p>

* 그 외 우수상(건축사협회장상) 수상작 3점 선정

□ 계획 부문 수상작

수상명	구분	작품명	출품자
국토부 장관상	대상	일상으로 스며든 병원	나선주 (숭실대학교)
건축사 협회장상	최우수상	신곡보이기때문에 보이기 시작했다	장영준 주현준 김대현 (부경대학교)
		유희교실 속으로 스며든 동네	이건재 유하연 주현성 (중앙대학교)
		나루유수지, 사람이 머물다	서범진 김호성 소재현 (가천대학교)
	우수상	지속가능한 생활SOC	이재성 김세연 (중앙대학교)
		우리동네 주차장	양혜린 (세종대학교)
		창신(昌信)동 쪽방촌,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만들기	백승협 백기환 김지윤 (창원대학교)
		결핍가정들의 공생으로 채워지는 삶	장윤정 (순천향대학교)
		소확행 : 소외된 공간의 확장과 행복	강화성 (한밭대학교)
		옥人동 마을옥상	곽승철 홍현도 이한솔 (충북대학교)
		마을형 보행 환승센터 : 성동구치소, 아홉 개의 문을 아홉 개의 마당으로	윤경익 고성준 (한양대학교)
		Memoryscape: 역사와 치유의 부산시민문화공간	김혜진 서은석 신다솔 (한국교통대학교)

* 그 외 입선작(건축사협회장상) 14점